

빈약한 學生福祉, 이대로 좋은가

金 鍾 一

(建國大 社會福祉學科)

1. 머리말

대학의 학생복지를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나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지난 해에 있었던 지방 캠퍼스 주변의 '비닐 하우스 자취방 소동'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에 다니는 학생들이 기거할 곳이 부족하여 농가의 흙썩나 비닐 하우스를 개조한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는 꽤 충격적인,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었다. 물론 이것은 素材가 조금 극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를 취재한 TV의 접근 방식도 매우 즉흥적이고 자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교 간에도 편차가 심해 제법 양호한 여건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도 비닐 하우스 자취방이 우리나라 대학의 객관적 현실을 이루는 한 부분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이뿐이라. 다행히 흙썩에 살지 않는다 해도 닭장같은 하숙집에서 연탄 가스에 중독되어 死境을 헤매는 학생들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며, 마땅히 쉼 공간이 없어 강의실 복도는 시장 바닥처럼 붐비고 있고 또 여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빈약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오늘날 한국의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고 겪는 日常의 현실이다. 이것은 1950년대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못산다는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의 이야기도 아니다. 이것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진리 탐구의 상아탑이니 지성의 전당이니 하는 허전한 소리는 일단 접어 두기로 하자.

우선 學生福祉란 도대체 무엇인가? 복잡한 이론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간단명료한 개념이다. 학생이 대학에 들어온 목적, 즉 공부하고 사람 사귀며 자기를 계발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여건과 환경 그리고 서비스를 뜻한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복지를 논할 때 학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이니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즉, 기본적 시설과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복지를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세 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를 논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글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 기본적 요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나라에서는 시설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 놓았다. 이 기준이란 것은 그야말로 기본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最小限의 개념이다. 그러나 이 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대학이 어디 한 둘인가? 좁은 공간에 학생은 들끓는데 학교측의 이야기는 늘 돈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해마다 増員 신청을 하지 않는 대학이 있었는가? 이것은 숙된 말로 밀친도 들이지 않고 돈벌려는 장사꾼 심보와 무엇이 다른가? 물론 이 문제는 개별 학교에게만 책임을 물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치고 대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투자가 이토록 인색한 나라라는 지구상에 더 없을 터이니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그 무슨 체계적 연구나 조사가 필요할 정도로 복잡한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날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살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일종의 습관적인 의무감에서 그 자료라는 것을 찾아 나섰을 때 나는 뜻밖의 경험을 하였다. 우선 제대로 정리된 자료가 거의 全無하다는 사실과 담당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였다. 마치 대단한 機密이라도 되는지 "모른다, 없다"는 말이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아예 '자료'를 포기하기로 작정했고 이 글은 더욱 상식적인 글이 되었다.

2. 우리나라 학생복지의 實像과 虛像

한국의 대학은 이 사회의 모습이 그러하듯 구호가 요란하다. 진리나 자유나 하는 古典의인 것부터 민족의 대학이니 세계의 대학이니 하는 '韓國的' 修辭까지 우리의 대학은 으레 구호로 시작한다. 구호 다음에는 상징이 있고, 번듯하고 웅장한 건물이 있다. 웅장한 건물로 치면 우리도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歐美의 유수한 대학들에 별로 뒤지지 않으리라. 또 최근에는 각 학교마다 큰 돈을 들여 대규모의 최신식 도서관을 경쟁적으로 짓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언제나 그 내용의 不質함에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도서관이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흔히 국립 서울대학교의 도서관이 선진국의 변두리 대학 도서관만도 못하다는 식으로 요약되는 우리나라 도서관 실태의 핵

심은 결국 冊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사실 도서관이든 다른 건물이든 하드웨어에 그토록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시설이 좋은 것을 타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허우데가 멀쩡하다고 사람됨을 보장할 수 없듯이 어마어마한 건물만 지어 놓으면 무엇하나? 더구나 이런 최신식 도서관의 1층은 이른바 로비라는 이름의 황량한 공간이 차지하고 학생들은 이곳에서 담배 피우고 떠들기 일쑤다. 앞으로 도서관을 새로 짓고자 하는 대학들은 부디 조금 작게 그리고 험한 값으로 짓되 예산의 대부분을 책 사는 일에 써주기를 바란다. 정말 이 나라의 대학 도서관엔 책이 없다. 요즘이 어떠한 시대인가? 이제는 진부하게 들리는 그 극대화 시대니 정보 사회니 하는 소리가 무엇을 뜻하나?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그만큼 빠르고 폭이 넓다는 말이고, 따라서 학문하는 사람은 쉽게 그리고 빨리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학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해야 하는 기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도서관이다. 그런데 우리의 도서관은 다들 건물만 번듯했지 도대체 엉망진창이다. 외국 책을 한번 신청하면 不知 何歲月이고 자료의 電算化가 안 되어서 자신들이 도대체 무얼 소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실정 아닌가? 그리고 이왕 도서관 이야기가 나왔기에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복사기 설치에 관한 것이다. 대학 도서관에는 대부분 복사실이라는 데가 있다. 여기는 늘 학생들로 북적이고 시험 때면 정말 可觀이다. 나는 이 광경을 볼 때마다 왜 우리는 커피 자판기는 즐줄이 설치하면서도 동전 복사기는 설치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다. 외국 대학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도서관에 동전 복사기를 설치한다면 학생들의 자료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고 쓸데없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석이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에는 의외로 많다. 도서관에 대해 할 말은 많으나, 엄밀히 말해서 도서관 자체는 대학의 기본적 교육 시설이지 학생복지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더이상 자세하다루지 않기로 한다.

대학의 학생복지는 역시 기숙사 시설을 빼놓고 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른바 대학 문화는 도서관과 기숙사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대학의 歷史는 바로 도서관과 기숙사의 역사였다. 서양의 초기 대학들은 放縱한 학생들을 다스리기 위해 기숙사를 세우고 엄격한 규칙을 정하여 놓았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기숙사(residence halls) 없는 대학은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시구의 대학을 가보면 거의 예외없이 교정에 세워진 건물의 절반 이상이 학생들의 기숙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학부 학생들은 이 기숙사에서 거거하며 대학 시절을 보내기 때문에 도서관을 비롯한 학교 시설을 불편없이 이용하고 각종의 課外 활동에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나이든 대학원생들이나 가족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주거 단지에 학교 아파트를 지어 놓고싼 값으로 임대하여 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으니, 이 나라의 대학들이 세계적 연구 성과를 독점하는 것도 당연하리라.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선진국의 예를 들며 먹이던 우리는 흔히 ‘꿈같은 소리’나 ‘현실을 무시한 空論’이니 하는 비난을 듣게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한국은 한국이니까. 누구도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과 빈약한 물질적 토대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각과 태도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다. 기숙사는 단순히 학교 안에 자리 잡은 하숙집이 아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 해보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는 기숙사보다 하숙집이 더 친숙한 말일 것이다. 사실 지방 캠퍼스가 없었던 '80년대 이전만 해도 기숙사가 있는 대학은 극히 드물었다. 그나마 수용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대개는 특수한 목적을 지닌 학생들(예컨대 考試班이나 간호학과 학생 따위)을 위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지방 출신 학생들은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했고, 어떤 학생들은 ‘入住’ 가정교사를 하면서 숙식 문제를 해결했다. 대학의 기숙사 문제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이 좁은 나라에서 대학들이 ‘分校’라는 것을 계획하고 황

량한 벌판에 줄줄이 학교를 지으면서 학생들의 숙식과 통학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 사회에서는 기숙사 문제를 지방 캠퍼스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 물론 지방 캠퍼스의 기숙사 문제는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서울의 住居費는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보다 기숙사 문제는 더 시급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생각은 그저 글쓴이의 사치스러운(?) 희망으로 그칠 公算이 크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울 소재 대학들이 최소한의 강의실 공간조차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기숙사라니!

그런데로 하숙집이나 자취방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있는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의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서울 소재 대학의 지방 캠퍼스 학생들에 비교하면 형편이 훨씬 나은 편이다. 대부분의 지방 캠퍼스들은 背後 도시의 변두리에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아예 人家가 드문 허허 벌판에 놓여 있어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환경이 아주 粗惡하다. 해가 지면 인적이 드물어지고 택시조차 가기를 꺼리는 상황은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일종의 ‘섬’을 연상시킨다. 학교 주위에 있는 건물이라고 해봐야 불품없이 급조된 하숙집과 자취방이 전부다.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 곳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하숙촌의 환경은 특히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동네 전부가 하숙집이다 보니 개인의 프라이버시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학업을 소홀히하거나 퇴폐적인 생활에 빠지는 학생들을 자주 보게 된다. 따라서 기숙사는 지방 캠퍼스의 필수적인 요소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학의 기숙사는 그 수용 능력이 아주 적다.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 수의 10~15%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기숙사가 전혀 없는 학교도 있다. 이러다보니 상당 수의 학생들이 불량한 환경을 감수하고 하숙·자취를 하거

나 매일 장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전국대 충주 캠퍼스의 경우, 전체 학생 수의 20% 가량인 천 여 명이 서울에서 통학을 하고 있다. 이들이 아침 9시에 시작하는 1교시 강의에 출석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6시에는 집을 나서야 한다. 아침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두 시간 이상을 버스에 시달리면서(심지어 서서 오는 학생도 적지 않다) 허둥지둥 강의에 들어온들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또한 통학생들의 대부분은 마치 학원을 다니듯 자신의 수업이 끝나는 즉시 집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기가 바쁘다. 이들에게 대학의 낭만과 아카데미즘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공허한 일이다. 이것은 축제 때가 되면 통학생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교정이 도리어 쓸쓸해지는 모습에서도 그대로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 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늘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지방 캠퍼스 사정에 대해 이미 말이 나왔으니 교통 문제도 아울러 거론하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 캠퍼스는 대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分校를 세울 당시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계산에 따라 땅 값이 싼 곳을 찾다보니 背後 도시와의 물리적·사회적 연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던 탓이다. 그래서 학교마다 거의 예외없이 통학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통학 버스를 놓치면 학교 오는 길이나 집에 가는 길이 여러모로 힘들고 불편해진다. 따라서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통학생들에게는 통학 버스가 일종의 '생명줄'인 셈이다. 통학 버스의 운영은 학교 자체의 버스를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관광 버스 회사와 학생회측이 계약을 맺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사고가 일어나면 법적 문제가 복잡해질 소지가 많다. 특히 학생들의 自治 조직이 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성가신'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비록 학교 당국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도 도덕적 책

임을 추궁당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다. 통학 버스 못지 않게 중요한 지방 캠퍼스의 교통 문제는 背後 도시와의 연결을 편리하게 하는 일이다. 학교를 거쳐가는 시내버스의 路線數를 늘리고 배차 간격을 좁히는 일부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 해가 지면 택시밖에는 다른 마땅한 교통 수단이 없는 실정인데, 이것을 악용해서 많은 택시 기사들이 부당한 요금을 달라거나 승차를 거부하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지방 캠퍼스와 해당 지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와 해당 지역의 당국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체육 및 휴게 시설에 관해 살펴 보자.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종합운동장만은 죄다 가지고 있다.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점에 대해 생각을 좀 달리하는 편이다.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의 대학들처럼 학교마다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과 각종의 체육 경기 시설을 가질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국토는 좁고 대학의 부지는 손바닥만하다. 이런 형편에서 그 큰 종합운동장이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이 늘 떠오른다. 교정의 要地를 차지하고 있는 이 운동장에 차타터 잔디와 나무를 심어 드넓은 휴식 공간으로 가꾸는 것이 훨씬 나을 듯하다. 오히려 조그마한 운동 공간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강의실이나 연구실 앞에서 하루종일 떠들며 족구를 하는 학생들을 탓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간단히 땀이라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어디 있으며, 또 있다고 해도 일반 학생들이 접근이나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나는 참으로 우리나라 대학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發想의 轉換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한국의 대학들이 각종의 스포츠 팀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일반 학생 대중에게 쓴다면 이러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대학의 스포츠 팀은 진정한 의미의 아마추어 팀이 되어야 한다. 少數의 특기자를 위한 대학 스포츠는 학생 대중을 위한 체육복지로

그 목적과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수영장을 비롯해서 온갖 운동 시설을 갖춘 외국 대학의 실내 체육관(흔히 gym으로 불리우는)이 꿈처럼 들리는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돈이 부족한 것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舊態依然한 생각이리라.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복도나 강의실 건물 앞에 학생들이 모여 떠드는 광경을 늘 보게 된다. 학생들의 대답인즉 설 곳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휴게시설이 잘 되어 있어도 떠드는 학생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휴식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틀림없다. 학생회관 하나로 학생들의 모든 복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각 건물을 지을 때 학과별로 작은 휴게 공간을 제공하거나 건물마다 별도의 휴게실을 설치한다면 별로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강의실과 연구실 그리고 휴게 및 운동 공간이 적절히 배치된 캠퍼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학의 生産性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터인데 하는 아쉬움이 어찌 나만의 생각이겠는가? 아울러 학생들 자체에도 문제는 많다. 학교 시설을 아끼고 잘 간수하는 일은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도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명색이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제 대학 내의 의료 및 보건 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우리나라는 그 내용에 대한 시비야 어떻든 진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학생들에게 독자적인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입장은 아니다. 미국같이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없는 나라의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들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웬만한 傷病은 학교 부설의 보건소(health center)에서 치료해 주고 있다. 나도 유학 시절에 이 학교 보건소의 덕을 여러 번 보았고 꽤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하였다. 물론 우리에게도 의료보험 제도가 있으므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병을 치료할 의무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대학의 보건소는 절대 불가결의 시설이며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학에

는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살거나 하숙·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상당 수 있다. 이들이 감기와 같은 사소한 병에 걸렸을 때 학교 보건소를 통해 적절하고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은 기초적 건강도 지키고 애교심도 깊어질 것이다.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는 이미 이러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이 있는 몇몇 학교들은 良質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학생들을 돌보아 주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학교들은 매우 형식적인 보건 시설만 갖추어 놓고 흉내만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보건소는 入試 때 신입생들의 신체 검사나 하는 곳이라는 인식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의과대학을 다루어 신설하고 있는 대학들에 변변한 보건소 하나 없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보건소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을 다양화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 대학들이 앞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로 학생들의 精神心理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적 정신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入試 경쟁에 이기기 위해 살아온 학생들의 정신 심리 상태는 약육강식의 논리, 지나친 경쟁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임신출세주의 등으로 얼룩져 있고,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하거나 강박 증세를 겪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심리 문제를 다루는 대학 내의 기관은 학생처가 운영하는 상담실 정도인데, 전문 인력과 예산의 부족 그리고 홍보 미비와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에 有名無實한 존재가 되어 버렸다. 외국의 대학들이 지나칠 정도로 이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국내의 많은 대학들은 심리학·사회학·교육학 등의 관계 분야를 전공한 학내의 전문가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학생들을 방치하고 있다.

3. 문제의 원인과 대책 :

改善을 위한 몇 가지 提言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복지는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가 그러하듯 '복지의 빈곤'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이렇게 빈곤한 학생복지의 원인은 궁

극적으로 빈곤한 대학 제정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학생복지에 대한 우리의 빈곤한 認識도 중요한 원인이다.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낭비가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일종의 투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복지의 빈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학생복지의 빈곤을 초래한 한국 대학의 構造的 問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름대로의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 대학의 재정 문제는 귀가 아플 정도로 익히 들어온 터라 세삼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너무도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다. 그러나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또 있을까? 사실 대학의 운영을 거의 전적으로 학생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재 한국 대학의 재정 형편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그렇게 바라는 선진국의 꿈은 斷言하건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부유한 대학은 있어도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대학은 없다. 그러던 무슨 묘책이라도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볼 때 대학 자체의 資源 동원 능력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입학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몇몇 유명 대학에 집중될 것이 뻔하므로 보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결국은 정부와 사회가 이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군사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줄이고 誇示用·선전용의 쓸데없는 사업(예컨대 올림픽 기념행사, 대전 엑스포 등등)에 들어가는 돈을 대학에 투자한다면 대학의 빈곤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인가? 기득권에 연연하면 모든 제안이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쉽다. 생각을 바꾸자.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부담이 커져야 한다. 기업이야말로 대학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닌가? 정치권력을 쥔 사람들에게 바치는 돈의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정기적으로 대학에 보내 달라. 정부와 기업 외에도 사회 일반의 각성이 필요하다. 나는 가끔 특별히 여유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앞장 서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기증하는 운동을 벌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같은’ 생각을 하곤 한다. 자

신의 모든 재산을 대학에 기증한 김밥 장수 할머니의 이야기는 분명 美談이긴 하지만 웬지 허전하다. ‘진짜’ 부자들은 다 무엇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오늘의 시카고대학을 있게 한 John Rockefeller의 亞流라도 찾아 볼 수 없는가? 이 차이가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아닐까? 나라와 개인은 나날이 부자가 되어 간다는 데 대학은 갈수록 돈에 허덕이는 곳,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들어 오지 않는 돈을 기다리며 한탄만 할 수는 없기에 이제는 없는 돈이라도 좀 생산적으로 써보자는 이야기로 바꾸어 보겠다. 우리의 대학들은 사실 사회를 향해 기부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도덕성이 부족한 뿐만 아니라 대학 사회의 존재 목적과도 관계가 있는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낙제감이다. 학생복지 문제에 관해서도 학교측의 대답은 늘 예산 부족으로 귀결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의 낭비와 오용이 日常化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며,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은 종종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가기 십상이다. 특히, 필요한 분야의 人的 資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군더더기 行政 人力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나, 대학 보직자들이 이런 문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아직 요원하다.

학생복지의 실현에는 많은 돈이 들지만 돈만 넉넉하다고 학생복지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학생들의 복지에 대한 필요와 욕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합리적 機構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는 학생처에 장학복지과라는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빈약한 실정이고 하는 일도 복지보다는 장학 업무에 치중하는 인상을 준다. 또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장학복지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자동판매기 등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토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전문성도 없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많다. 이 두 개의 조직은 하나로 합쳐져야 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되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주체는 당연히 학

교당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생복지를 담당하는 기구는 학생처의 一個 部署가 아닌 독립된 조직으로서의 位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학의 복지 문제는 학생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내 수영장을 만든다고 할 때 학생용과 교직원용을 분리해서 두 개를 만들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학생복지 관계 부서는 ‘대학복지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되 교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성격을 갖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주로 학생복지의 하드웨어적 측면(즉, 시설이나 조직)에 관해 언급했는데,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質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시설이 거창하고 조직만 그럴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각종의 학술·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정기적 기념강좌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일반 극장에서 보기 힘든 영화의 필름을 구해다 상영하거나 하는 것들은 외국의 대학에서는 상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학

생들의 자치 활동에 맡기기보다는 학교가 적극적으로 떠맡아서 우리 형편에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변형시켜 시행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실제적인 進路 지도와 생활 상담의 內實化 등은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4. 맺는 말

우리는 모든 문제를 돈의 문제로 환원하는 습성부터 버려야 한다. 돈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예산 타령이 면허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에서의 학생복지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황폐한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현실 인식과 함께 그들의 삶이 진실로 풍요해지기를 바라는 애정과 관심이며, 둘째는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는 일이다. 어떠한 제안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느니 원본적이라느니 하는 비난은 당장의 책임 회피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이 되기 쉽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先進대학이 없는 先進國은 없다. ■